
태국 소설 『까티의 행복』에 나타난 트라우마의 재현과 자연 친화적 환경

최난옥(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목 차〉

- I. 서론
- II. 트라우마의 재현
- III. 자연 친화적 환경과 일상
- IV. 결론

국문초록

『까티의 행복』은 태국인 엄마와 버마인 아빠를 둔 9세 소녀 까티 이야기다. 이 글은 트라우마의 재현과 자연 친화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까티의 엄마는 5년 시한부 삶의 루게릭 병 환자다. 아유타야에서 외조부모와 사는 까티는 비와 천둥소리가 나면 여자의 고탐소리가 들려서 괴로워한다. 엄마는 죽음이 임박해서야 까티를 만나서 까티를 떠나야 했던 사건에 대해 밝힌다. 까티는 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까티는 엄마의 사후에 영국에 거주하는 아빠를 만나지 않기로 결정한다. 부계혈통에 따르면 버마 출신인 까티는 출신에 얽매이지 않고 외조부모와 계속 살기로 한다. 아열대 기후의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까티는 집안일을 돕는 일상에서 배려심을 키웠고, 외할아버지의 타인에 대한 헌신성을 흠모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응암판 옛차치와, 『까티의 행복』, 태국, 트라우마, 자연환경

I. 서론

태국 소설 『까티의 행복』(ความสุขของกะทิ)(2003)은 응암판 웻차치와(งามพรรณ เวชชาชีวะ)¹⁾의 2006년도 동남아시아 문학상(Southeast Asia Write Award) 수상작이다. 이 상의 심사위원회는 이 장편소설의 매력이 등장인물이 경험으로 깨우친 삶에 대한 이해가 있고, 유머 감각을 가미하고, 경쾌한 언어로 주인공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전달하는 기법에 있다고 한다. 감정의 과급은 서서히 전달되고 독자의 사고의 심연은 곧장 깊어져서, 한 인간의 작은 세계에서 작은 삶의 경험에 잘 어울리는 비극과 상쾌한 만족감을 독자에게 제공한다²⁾고 한다.³⁾ 『까티의 행복』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승숙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지만, 그동안 겉으로만 알고 보아 왔던 태국의 문화를 눈에 보듯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라고 한다.⁴⁾ 이 작품의 번역 관련 연구가 있는데,⁵⁾ 주로 중역에서 생기는 오류로 인해 태국 문화가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실제로 작품이 전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까티의 행복』은 태국인 엄마와 버마(현재 미얀마)⁵⁾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9세 소녀 까티(กะทิ)에 관한 이야기이다. 까티의 아빠를 버마 출신이라 하고 방콕 태생인 까티의 엄마를 ‘아유타야(อยุธยา) 출신’이라 한 것은 버마에 멸망했던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1350-1767)을 떠올리게 하는 의도가 있다.⁶⁾ 구성은 총 3

1) 응암판 웻차치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3세에 태국에 왔다. 탐마삿대학교 예술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한 뒤,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정부의 통번역학교에 유학하여 고급번역자격증을 받았다. (프랑스어-영어-이탈리아어) 미디어포커스 회사의 번역 임원직을 역임한 후, 아동 잡지 『세 친구 잡지』의 시주이자 편집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세계 출판사와 작가의 문학 관련 대행업체인, 시카롯 퍼블리셔 에이전시 주식회사 관리 이사로 재직 중이다. 그밖에 각 교육기관과 대학교에서 번역과 관련 분야의 특별 강연자로 활동하며, 우화와 청소년용 작품 경연 선정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프랑스 문화를 전파한 공로로, 1999년 2월 25일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기사급 예술과 언어 훈장’을 수여 받았다. 『까티의 행복』은 그의 첫 작품이다. (งามพรรณ เวชชาชีวะ, ความสุขของกะทิ, งามพรรณ เวชชาชีวะ 2007, pp. 199-120).

2) 위의 책, p. 6.

3) 제인 베자치바, 『까티의 행복』, 이승숙 옮김, 위즈덤하우스, 2009, 162쪽.

4) 신근혜, 「태국소설 『까티의 행복』의 한국어 번역본 일고찰: 문화어휘 번역 양상 연구」, 『比較文學』, 71호, 한국비교문학회, 2017, 41~66쪽.

5) 이 작품에서는 현재의 국명인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를 따르고자 한다.

부 27장인데, 1부는 아유타야, 2부는 후아힌(หัวหิน), 3부는 현 태국 수도 방콕이 공간 배경이다. 등장인물들의 호칭은 까티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였던 아유타야는⁷⁾ 엄마의 발병 후에 까티가 외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곳으로 강으로 에워싸인 섬이다. 태국 남부의 해변 휴양지인 후아힌은 근위축성측삭경화증⁸⁾이라는 루게릭 병 환자로 5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까티의 엄마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까티가 방문한다. 수도 방콕은 엄마가 발병하기 전까지 까티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까티는 엄마의 사후에 유품을 찾아 방문한다.

비록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해도 까티는 외조부모와 아유타야의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러나 까티에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중에 비와 천둥소리가 나는 날이면 여자의 고향소리가 들려서 고통을 겪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픈 엄마로 인해 까티와 엄마가 아유타야에서 함께 겪은 사건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인데 까티는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엄마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작품에 나타난 트라우마의 재현과 자연 친화적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트라우마의 재현

성명이 가까운 꾀짜나윗(ณัฐ พงษ์)이고 별명이 까티인 주인공은 1993년 2월 14일 ‘사랑의 날’⁹⁾에 방콕에서 태어났다. 외조부가 ‘사랑의 근원지’라는 의미인 나까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만큼 아기 때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인

6) 1569년 버마의 따웅우 왕조의 버innaung(bayinnaung) 왕대에 아유타야 왕국 정벌에 나서 수도를 점령하여 15년간 통치하고, 곧바웅(konbaung) 왕조의 신부신(shinbyushin, 1763-1776) 왕대인 1767년 4월 총공격에 나서 아유타야 왕국을 멸망시킨다.(김성원, 『미얀마 왕조사』, 부산외국어대학교, 2001, 140-226쪽)

7) 속지주의 국가인 태국은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가 아유타야로 국명과 수도명이 같다.

8) 루게릭 병이라고도 하는 이 병의 증세는, 근육이 점차 약화하여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도, 먹을 수도 없게 되고, 심장 근육까지 마비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9) 2월 14일 밸런타인 데이(Saint Valentine's Day)를 여기서는 ‘사랑의 날’이라 한다.

물로서, 땀 아저씨(အဖေ)가 하던 일을 멈추고 까티 곁을 지키고 있어서 땀 아저씨와 외조모가 서로 까티를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일 정도다.¹⁰⁾ 손수로는 땀 아저씨의 엄마와 외조모가 사촌지간이니, 땀 아저씨와 까티의 엄마는 육촌지간인데, 까티의 엄마는 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땀 아저씨를 알게 된다.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였고 이제는 한 시골 마을이 되어버린 고도 아유타야에서 까티는 외조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폭우가 내리고 천둥이 칠 때면 여자의 고향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듣기 싫어하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문제가 있다.

그 순간 외할머니는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에 누워 까티를 꼭 안고서 아침까지 함께 잤다. 까티는 외할머니의 품 안에 폭 파고들었다. 까티는 하늘에서 나는 우르릉거리는 소리, 빗소리, 여인의 고향소리 같은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외할머니의 시원하고 보드라운 피부에서는 좋은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외할머니는 까티에게 놀란 가슴을 달래 줄 동화를 들려주거나 자장가를 불러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까티의 등을 가만가만 리듬감 있게 쓰다듬어 기분 좋게 잠들게 해주었다. 한번은 졸려서 감졌던 눈을 떴다가 외할머니의 안구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멀리서 번쩍거린 번개 덕분에 까티는 확인할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외할머니는 울고 있었다.¹¹⁾

위의 내용은 비 내리고 천둥치는 날이면 ‘여자의 고향소리’가 들리는 것을 싫어하는 까티를 외조모가 달래는 장면이다. 외조모는 동화나 자장가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토리를 싫어하는 기질인가 싶지만, 시한부 인생인 딸과 환청에 시달리는 외손녀를 둔 현실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슬픔을 삼키는 외조모의 고통은 ‘눈물’이 아롱진 안구를 통해 표출된다.

까티가 부엌에 들어가자 외할머니가 돌아다보았다. 외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거나 인사말을 건네는 적이 없었다.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의 미소가 극소량이니 통조림에 채워 넣어 해외에 수출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텅 오빠의 미소는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았다.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는 바로 입과 눈으로 연결되어, 물에 돌을 던졌을 때

10) ဘုမ္မာမင်းမိတ်, 앞의 책, pp. 60-62.

11) 위의 책, pp. 20-21.

12) 위의 책, p. 13.

처럼 주위 물결로 후광이 비쳐서, 주변 사람들도 그걸 느낄 수 있었다.¹²⁾

위에서 미소의 나라 태국에 걸맞게 환한 미소를 짓는 텅 오빠(พี่)와 미소가 드문 외조모가 서로 대조적이다. 텅 오빠는 절에서 숙식하며 학교 다니는 소년인데, 까티가 4살 때 처음 본 후로 줄곧 함께 놀아 주기를 좋아한다. 까티가 헤어져 지냈던 엄마를 만나러 가는 여정은 표면적으로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러 가는 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까티가 겪는 트라우마의 원인을 찾는 길이다. 까티의 엄마는 루게릭 병을 앓는 병자로 태국 남부의 한 휴양지 후아힌 바닷가 집에서 요양 중이다. 이 병의 증세가 20살에서 40살 사이에 나타난 환자들은 5년 정도 사는데, 엄마는 33살에 발병하여 거의 5년이 되어간다는 것은¹³⁾ 엄마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외조부가 까티에게 엄마를 만나러 갈 것인지 결정을 일임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나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인격 형성이란 타율적인 것에 의한 것이므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그런 인간 형성으로 이어지긴 힘들다”¹⁴⁾ 라는 말처럼 까티가 자율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은 엄마의 죽음이 다다랐기에 까티가 엄마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런 사실을 알 길 없는 까티는 엄마를 만나기로 결정한 후에야 엄마의 병증에 대해 알게 된다.

간 아저씨가 무심코 까티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들 앞에 있는 소나무에서 시작해, 호텔앞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했다. 재차 물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까티는 달렸다. 모래에서 올라온 뜨거운 열기와 뒤섞인 바람이 까티의 얼굴로 불었다. 까티는 점점 더 빨리 달렸다. 지평선에 닿을 듯이 달렸다. 이제는 엄마가 느낄 수 없는, 하지만 예전에는 느꼈을 고운 모래의 감촉이 발에 느껴졌다. 이제는 엄마가 움직일 수 없는, 하지만 예전에는 움직였을 모양으로 양손을 주먹 쥐고, 달리는 리듬에 맞춰 위아래로 움직였다. 까티는 손을 들어 올려 눈물을 흘렸다. 예전에는 엄마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간단한 동작조차 할 수 없다.¹⁵⁾

13) 위의 책, p. 50.

14) 안건훈, 『자유 의지와 결정론』, 집문당, 2006, 259쪽.

15) งามพรรณ เวชชาชีวะ, 앞의 책, p. 51.

위의 내용은 이 소설에서 까티가 눈물을 흘리는 단 한 장면이다. 깐 아저씨(ก้าน)로부터 엄마의 병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까티는 달리면서 엄마가 겪는 병증이 몸소 느껴져서 우는 것이다. 깐 아저씨는 엄마와 같은 대학교 테니스 동아리 2년 후배이자, 엄마의 아이디어로 성사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게임쇼>의 대표로 엄마가 추대한 인물이다.

엄마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해도, 말을 할 수 없다며 숨쉬기를 도와주는 튜브를 삽입할 구멍을 목에 내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까티는 혀를 자르라고 하고, 대신 지느러미를 다리로 바꿔서 사랑하는 왕자를 찾아갔던 동화 속 인어 아가씨가 떠올랐다. 엄마에게는 찾아 나설 사랑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¹⁶⁾

위의 내용을 보면, 엄마는 ‘생명 연장’이 아니라 ‘대화’의 길을 선택한다. 까티는 엄마의 사랑이 ‘아빠’라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까티’를 사랑하기에, 까티가 기억하지 못한 채 시달리고 있는 트라우마를 해결하자면 발단이 된 과거의 사건을 까티에게 말해야 한다. 엄마는 자신의 병명을 알고 난 후에 외조부모와 함께 살려고 까티를 데리고 아유타야에 간 것이며, 외조부모의 부재 시에 까티에게 비나무(ต้นไม้ rain tree)를 보여주려고 배를 몰고 나갔다가 폭우를 만나 까티를 위험에 빠뜨린 사건에 대해 밝힌다.

“엄마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애쓰며 너한테 꿈쩍 말고 앉아 있으라고 말했어. 네가 놀라서 일어나 양손을 벌리고 엄마한테 오다가, 배가 전복될까 봐 엄마는 겁이 났지. 엄마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엄마는 물에 뛰어들어 널 안고 올 수도 없었고, 팔을 있는 힘껏 내밀어 노를 가지고 배를 붙잡으려고 해도 겨우 배에 닿을 뿐이었지. 엄마의 팔은 바람과 물에 맞서 배를 끌어올 만한 힘이 없었어. 게다가 노마저 손에서 놓쳐서 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단다. 엄마는 마치 미친 사람 같았어.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늘에서는 비가 퍼붓고 있었어. 엄마는 널 향해 꿈쩍 말고 앉아 있으라고 소리쳤어. 천둥소리에 맞서서 외쳤어.”¹⁷⁾

위와 같이 까티에게 말하고자 엄마는 악몽 같은 사건을 다시 떠올린다. 까티

16) 위의 책, pp. 54-55.

17) 위의 책, pp. 66-67.

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여 트라우마를 겪은 것이다. 그동안 까티가 듣기 싫어했던 ‘여자의 고탐소리’는 바로 하늘의 소리에 맞서 외쳤던 ‘엄마의 목소리’이다. 엄마는 까티가 움직이면 배가 전복될 것을 염려하여 까티에게 그냥 앉아 있으라고 외쳐대었는데, 하늘의 폭우와 천둥소리에 맞서서 고탐지를 정도의 강도였기에 까티의 뇌리에 박혀 환청이 되고만 것이다.

“그러면서 엄마는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가르쳐 주었던 부처님의 시구가 생각나는 대로 속으로 염불을 했어. 염불하고 나서는 기도했어. 신성한 만물에 대고 맹세했지. 정말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아기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가진 걸 다 내놓겠다고 했어. 그 대가로 보통 사람들은 아마 목숨을 내놓겠다고 기도하겠지. 하지만 엄마의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아무런 교환 가치가 없었을 거야. 엄마는 우리 아기가 안전하다면, 다시는 아기를 만지지 않겠다고, 아기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다시는 아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기도했어. 그 순간 엄마의 기도를 알아들었다는 듯이 벼락이 팡 치더구나.”¹⁸⁾

위에서, 엄마와 까티가 서로 헤어지게 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까티를 살려 주면 떠나겠다고 한 엄마의 ‘맹세’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부터 엄마는 육교에서 까티를 떨어뜨려 모녀가 함께 다치거나, 까티를 여러 번 다치게 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엄마는 자신이 까티를 돌볼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까티 곁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이는 엄마가 까티를 배에 태우고 나가는 것을 외조부모님이 말려도 들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엄마는 심중으로는 몸이 그전 같지 않다는 걸 부인했었나 봐”¹⁹⁾ 라고 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물, 보트, 정자, 갯메꽃을 좋아하는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병든 몸 상태가 평상시와 얼마나 다른지 가늠하지 못하고 까티를 배에 태우고 나갔다가 비를 만나 위기에 처한다. 마침 까티하고 놀려고 이틀 모녀의 뒤를 따라 배를 몰고 온 텅 오빠가 까티를 구한 생명의 은인이다. “날이 밝자마자 엄마는 가방을 꾸려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수

18) 위의 책, p. 67.

19) 위의 책, p. 65.

20) 위의 책, p. 70.

로 변의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²⁰⁾ 이렇게 엄마는 까티가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 열이 내리자, 홀로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버리니, 표현을 하지 않는 기질이 엄마에게 있는 듯하다. 엄마가 떠나고 난 후부터 까티의 양육을 도맡아 한 사람은 외조부이다.

까티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외동딸이 먼 이국땅에서 결혼하는데다가, 가까운 미래에 고향으로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아유타야 출신의 여자가 버마 출신의 남자를 사랑하여 결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었다.²¹⁾

위에서, 1965년 방콕에서 태어난 까티의 엄마를²²⁾ ‘아유타야 출신’이라고 한 것은 엄마의 아버지, 즉 까티의 외조부 가계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부계혈통을 기준으로 출신을 말한다면 방콕 태생인 까티는 ‘버마 출신’이 된다. 엄마가 까티를 임신한 채로 태국으로 귀국했기에, 한 번도 본적 없는 아빠의 나라 버마 출신이라는 사실을 까티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우리 예쁜 버마 아가씨는 기분이 어떤가?” 땡 아저씨가 인사말을 했다. 외할머니가 술을 들고 들어오다가 마침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분노에 찬 눈길로 췌려봤다. 까티는 전쟁터를 피해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엄마한테 갔다.²³⁾

위에서 땡 아저씨가 까티를 ‘버마’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을 외조모는 노골적으로 싫어한다. 땡 아저씨와 외조모 사이가 ‘전쟁터’ 분위기라는 것은, 아유타야 왕국이 버마의 침공으로 인해 1569년부터 15년 동안 버마의 속국이었고, 1767년 버마에 멸망했던 역사를 상기시키는 일면이 있다. 이런 ‘전쟁터’를 까티가 피한다는 것은 트라우마의 역사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신세대 아이는 과거의 역사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재의 삶을 결정하고 미래의 삶을 구상할 수는 있다.

까티는 엄마의 사후에 아빠의 ‘사진’을 보고 나서야 자신의 큰 눈이 아빠를

21) 위의 책, p. 95.

22) 위의 책, p. 90.

23) 위의 책, p. 54.

답은 것을 확인한다. 이로 보아 그동안 까티는 눈이 가족들과 닮지 않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던 듯하다. 이웃나라 버마 출신이고 영국에서 자란 아빠 앤서니 서머는 웹 마스터인데, 엄마가 인터넷 관련 법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와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은²⁴⁾ 엄마의 사후에 알게 된다. 까티는 사진을 보며 엄마와 아빠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아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엄마가 자신이 찾던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²⁵⁾라며, 엄마에 대한 아빠의 사랑에 의구심을 품는다. 이로 보아 부모의 이혼도 까티의 트라우마였던 듯하다.

외조부가 까티에게 엄마를 만나러 후아힌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한 것처럼, 엄마도 아빠의 런던 거주 주소가 적힌 편지를 남겨 엄마의 사후에 아빠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까티에게 일임한다. 그리고 엄마는 편지를 보낸 후 일주일도 지나도 아빠의 답장이 없으면 아유타야로 외조부모에게 가라는 말을 남긴다. 이 소설에서 아빠의 입장을 대변할 목소리조차 없고, 아빠가 까티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조차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일방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까티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빠를 만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혈연적 동일성의 신화에 굴복하는 것은 공동체의 운영에서 주체성의 포기를 의미한다. 피와 인종보다는 일과 생활의 중시가 주체성의 조건이기 때문이다.”²⁶⁾ 이에 의거하자면 까티의 주체성은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는 보관하고 대신 미국 여행 중인 텅 오빠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아빠라는 혈통을 찾기보다는 ‘현재의 생활’을 중시하는 것으로 발현된다. 이런 사실을 까티가 말하지 않았기에 알 길 없는 지인들은 까티의 아빠가 답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까티가 막 눈을 뜨고 사실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마침 땡 아저씨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까티는 팟트라야의 딸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24) 위의 책, pp. 93-94.

25) 위의 책, p. 97.

26) 레이 초우,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 장수현·김우영 옮김, 이산, 2005, 45쪽.

사랑도 듬뿍 받고 있고, 아주 잘 지낼 수 있어.” 텅 아저씨가 완전히 까티의 마음을 대변하여 말하는 것 같았다. 까티는 돌아누운 채 그대로 잠들었다.²⁷⁾

위에서 까티 엄마의 이름인 나팻트라(นภัทร)를 줄여 팻트라로 부른다. 현재 까티는 지인들로부터 충분히 사랑받는 인물이다. “사람은 남들과의 관계를 떠나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 공생할 필요가 있다. 서로 협력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한다. 사람은 이런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기만 하지 않고, 남들에게 공헌할 수도 있다. 이때 남들에 대한 공헌은 ‘행위’ 차원의 공헌뿐 아니라, ‘존재’ 차원의 공헌도 가능하다. 행복이란 곧 내가 누군가에게 공헌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은 인생의 끝을 기다리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²⁸⁾ 그러므로 까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존재가치를 느낀다. “비록 이제 막 까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오늘은 텅 오빠와 함께 바다를 구경해서 좋고 행복했다.”²⁹⁾ 이처럼 엄마를 상실해 슬픈 까티는 텅 오빠가 있어서 행복해한다.

이상 과거로의 여행에서 트라우마가 재현된 것은 까티가 트라우마의 원인을 알고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 여행은 까티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여정이다. 또한 까티가 현재 지인들의 사랑을 재차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게 되는 여정이다.

III. 자연 친화적 환경과 일상

레이 초우는 “로컬한 주장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본질화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타인과의 동맹을 위해 타인과 나란히 위치시키는 것을 뜻한다”³⁰⁾라고 하였다. 강으로 에워싸인 섬인 고도 아우

27) นภัทรนภภัทร, 앞의 책, p. 110.

28) 기시미 이치로, 『행복해질 용기』, 이용택 옮김, 더좋은책, 2015, 255-256쪽.

29) นภัทรนภภัทร, 앞의 책, p. 80.

30) 레이 초우, 앞의 책, 109쪽.

타야에서 외조부가 대인 관계나 자연을 대하는 모습은 친화적이다. 외조부의 대인 관계가 친화적인 것은, 까티를 배에 태우고 나들이 하면서, 배를 멈추지는 않지만 마주치는 사람마다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따피안(ต๋ำปี๋อัน, ta-pean)을 잡을 그물을 치는 쏘 아저씨에게는 귀갓길에 들어서 몇 마리 얻어 가겠다고 말하여,³¹⁾ 서로 나눠 먹는 마을사람들의 인심이 있음을 알려준다.

벧머리가 짧고 납작한 배는 좋은 운송 수단이었다. 공해도 발생시키지 않고, 노를 젓는 사람의 힘에 따라 맑은 물줄기를 가르며 내달렸다. 소금쟁이 무리 사이로 노를 저어 가면, 곤충들이 요란을 떨며 흩어져 도망쳤다. 외할아버지와 까티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 저 배와 물이 서로 충분히 인사를 나누게 내버려 두었다. 해가 하늘 저 멀리 있는 듯했다. 햇벌이 강해지기 시작했지만, 유리 갑옷처럼 눈을 뒤덮고 있는 주변의 물이 열기를 차단했다. 시간이 그대로 멈춘 것 같았다. 강과 하늘, 바람과 해는 한가운데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그림의 배경이었다.³²⁾

위와 같이 ‘열기를 차단’하는 물과 어우러지는 삶은 아열대 기후인 태국에 사는 사람들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일정한 틀 없이 한가로이 노를 저으며,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돌아다니는 외조부의 일상은 자연 친화적이고 자유롭다. 외조모가 싸준 점심을 흡족히 먹은 까티와 외조부가 한가로이 오수를 청할 새도 없이, 분 촌장이 외조부를 만나려는 마을 사람들이 탄 여러 척의 배들을 선도하며 나타난다. 이들은 외조부를 어려워하면서도, 외조부의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써 만날 약속을 따로 안 했어도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은,³³⁾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고 시간을 내주는 외조부의 헌신성을 보여준다.

까티의 외할아버지가 방콕에서 은퇴한 후 오랫동안 비워놓았던 증조부의 집으로 돌아왔고, 이걸 수로 변 마을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해외에서 유학한 일류 법률가인 외할아버지는 온 나라에서 인정받았다. 외할아버지는 많은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만약 외할아버지가 없었더라면 마을 사람들은 이용당했을 것이며,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의 땅을...³⁴⁾

31) งามพรรณ เวชชาชีวะ, 앞의 책, p. 23.

32) 위의 책, p. 24.

33) 위의 책, p. 26.

34) 위의 책, p. 27.

위에서 ‘조상의 땅’이란 대목에서 촌장의 말을 외조부가 끼어들어 중단시킨 것은 칭찬이 멋쩍어서인가 싶지만, 악인의 악행에 관한 내용은 많이 담지 않으려는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까티는 위와 같이 외조부를 소개하는 말을 매번 되풀이하는 촌장의 말을 듣기 좋아한다.³⁵⁾

외조부가 곤경을 겪는 마을주민들에게 법적 도움을 아끼지 않는 것은 아유타야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후견인 관계’의 현대적 변형이라 할 수 있다. 태국은 후견인 제도라는 전통이 있는데, 상위계층의 사람이 하위계층 사람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대신 하위계층은 상위계층에게 존경과 복종하는 제도다.³⁶⁾ 이 후견인 제도는 “후견인이 문자를 깨우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법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계층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사회 결속력을 다지는 아름다운 제도로 이런 사상이 오늘날까지 태국인의 정신에 깃들여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지만, ‘복종’한다는 점에서 ‘일방적 의존관계’로 볼 수 있다.”³⁷⁾ 아유타야 마을사람들이 그들을 돕는 외조부에게 ‘복종’의 의무는 없으므로, ‘후견인 관계’의 현대적 변형이다.

한참 후에 마을 사람들이 떠나고 해가 많이 기울었다. 까티가 정자로 들어가 보니, 외할아버지는 편지를 접어 봉투 안에 넣고 있었다. 까티를 쳐다보는 외할아버지의 표정이 지치고, 피곤하고, 기력이 다한 듯 보였다. 오랜 시간 햇살을 견디고, 비를 견디고, 세상을 견디느라 온 나무 조식이 과거에 잠겨 버려서, 더 이상 미래의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낡은 정자와 다를 바 없었다.³⁸⁾

위에서 외조부는 이제 늙고 기력이 쇠락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외조부의 타인에 대한 헌신성을 엄마도 이어받아서 ‘미덕의 근원지’라는 뜻인 나팏트라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삶을 산 것이 드러난다.

35) 위의 책, p. 27.

36) เรือเอกหญิงปราณี ประดิษฐ์, “วรรณคดีสมัยสุโขทัย-อยุธยา พ.ศ.๒๑๗๒”, พัฒนาการวรรณคดีไทย, นนทบุรี: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สุโขทัยธรรมาธิราช, 1992, p. 88.

37) 최난옥, 「원 리어 우와린의 『진짜 파랑』에 나타난 인권과 휴머니즘」, 『외국문학연구』 87호,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22, 141쪽.

38) จมพรคนเวทมนตร์, 앞의 책, pp. 27-28.

“외조부모님은 수로 변의 집으로 이사하셨어. 엄마가 적극 지지했어. 외할아버지가 집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거의 일 년 동안 연기하셨거든. 은퇴 후 주민처럼 사시는 게 외할아버지의 꿈이란 걸 엄마는 알고 있었어. 엄마는 생각만큼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 엄마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벽찰 정도였거든. 사람들이 전자상거래에 열광하고 있었어. 인터넷을 통해 물건 파는 거 말이야. 엄마는 홍콩에 있을 때부터 그 방면의 일을 했는데, 남한테 그 일을 거의 맡길 수가 없었던단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야 했고,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해줘야 했어.”³⁹⁾

엄마는 전자상거래 관련 자문을 해주며 쉴 새 없이 분주하던 시기에 병증이 나타났으니, 지나친 과로로 인해 루게릭 병이라는 불치병을 얻은 것이다. “엄마는 목표 없는 듯이 떠돌아다니는 해파리처럼 처신하고 싶다고 했다. 엄마는 평생 명확한 목표가 있었으며, 심지어 삶의 마지막 시기인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다.”⁴⁰⁾ 이처럼 엄마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과 정해놓은 목표대로 사는 삶이 서로 불일치한 면모를 보인다.

자연 친화성에 따른 전통 보존의 일상은 외조모에게서도 보인다. “마시는 물을 담은 항아리는 빗물 파이프 아래에 두었는데, 빗물을 그 안에 받아 놓았다가 나중에 끓여서 병에 담아 두고 목이 마를 때 마셨다.”⁴¹⁾ 이는 아유타야는 빗물을 식수로 활용하던 전통을 오늘날까지도 유지할 정도로 공해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이라는 뜻이다. 수돗물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조모가 고생을 사서 한다고 외조부가 불평하는 것으로 본다면, 외조모는 수돗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자연적 삶을 고수하는 것이다.

외조모가 고전식 밥짓기를 고수하는 점에서도 전통 보존의 삶이 보인다. 전통적 밥짓기는 끓어오르는 밥물을 버려서 밥의 끈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밥알이 푸석하고 고소한 맛이 나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소화가 쉽게 되는 이점이 있어서, 식욕이 나지 않아 끼니를 거르기 쉬운 무더운 아열대 기후에 어울리는 조리법이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끈기가 없는데, 현

39) 위의 책, p. 64.

40) 위의 책, p. 59.

41) 위의 책, p. 30.

대 태국인은 양손으로 수저와 포크를 사용하여 해결한다. 주민들도 전기밥솥을 사용하는데, 외조모는 마을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겁내는 거라는 외조부의 푸념을 보면,⁴²⁾ 전기밥솥이 없어서 외조모가 기존의 조리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 외조부는 외조모가 전통적으로 밥 짓는 방법이 태국의 아열대기후에 걸맞은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방콕에 있는 아파트에서 엄마와 함께 살던 까티가 엄마의 발병 후에는 외조부모와 함께 아우타야에서 살게 된다. 까티는 아우타야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 이것은 자기가 먹은 도시락 통을 씻는 일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까티는 도시락 통을 씻어서 부엌 설거지통 안에 넣어 두었다. 저녁이 되면 도시락 통을 다시 한 번 깨끗이 닦아 낸 뒤 아침에 외할머니의 손길에 가까이 닿게 화덕 옆에 갖다 두었다.⁴³⁾

위에서 도시락 통을 닦는 것에 머물지 않고 외조모의 ‘손길에 가까이’ 닿는 위치에 두는 행동에서 까티는 배려심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일상 외에 까티가 하는 또 한 가지 일은 빨랫줄에서 마른 옷을 걷는 일이다. 이런 집안일을 보아도 까티는 어엿한 한 사람 몫을 하며 성장하고 있다.

법랑용기는 외할머니가 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 주었다. 까티는 빨랫줄에서 다른 빨래를 걷어 법랑용기에 담아서 외할머니에게 드리는 일을 했다. 이 일은 까티가 빨랫줄에 있는 빨래집게에 손이 닿지 않았을 때부터 해왔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바퀴 달린 사다리를 제작하여, 빨래를 담는 법랑용기를 넣을 수 있는 바구니를 달아주었다. 외할아버지는 빨랫줄 사이로 까티가 천천히 이동하도록 사다리를 밀어주었다.⁴⁴⁾

위에서 까티가 ‘빨래집게에 손이 닿지 않을 때부터’ 빨래 걷는 일을 했다는 것은 까티 같은 부유한 집안 아이가 이런 가정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강압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에

42) 위의 책, p. 36.

43) 위의 책, p. 17.

44) 위의 책, p. 19.

게 부족한 여건은 받쳐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까티의 키 높이에 맞춤형 사다리를 만들고 이끌어주는 외조부의 행동이다.

엄마가 요양하고 있는 후아힌에 가서도 외조부는 까티에게 자연의 성질을 이용해 교훈을 준다. “외할아버지는 소나무들이 바람의 방향 따라 휘기 때문에 바람을 잘 막는 거라며,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소나무들은 꺾이지 않는다고 했다.”⁴⁵⁾ 활지언정 꺾이지 않는 대나무로 비유되는 태국인의 기질을 외조부는 소나무로 대체하여 까티에게 삶의 교훈을 일러준다. 엄마의 사후에 아빠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까티는 외조부모가 사는 아유타야로 다시 돌아간다.

까티는 자리 가기 전에 부처님께 절했다. 학교 가려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다. 모든 건 그대로다.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까티는 외할머니의 프라이팬 뒤집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다시 세상을 맞이할 것이다.⁴⁶⁾

위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은 외조부모와 함께 아유타야에서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살기를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지금 이대로의 자기 모습을 지키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다.”⁴⁷⁾ 까티가 후아힌과 방콕으로 과거를 찾아 떠난 여행은 심중에 있던 트라우마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다. 앞으로 까티는 더 이상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는 일이 남아 있다. 엄마는 외조부모에게 까티를 전적으로 다 일임한 것이 아니라 까티의 미래에 필요한 학자금 등 자금을 마련해줘서 금전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까티는 앞으로도 가족과 지인들을 사랑하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주체성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문학상 심사위원회는 “『까티의 행복』은 어떤 문화와 연령층이든

45) 위의 책, p. 73.

46) 위의 책, p. 118.

47) 기시미 이치로, 앞의 책, 77쪽.

간에 다양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향을 전달한다”⁴⁸⁾라고 한다. 무엇보다 태국인 엄마의 사후에 영국에 거주하는 버마인 아빠를 찾아가는 혈통 찾기보다는 태국에서 태어나 살았던 까티가 정든 장소와 정든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 속인주의보다는 속지주의 성향이 강한 태국다움을 보여준다. 혈통주의 성향이 우세한 문화가 있는 아시아 일부 국가의 국민도 이런 성향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혈통보다는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이런 성향이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다.

IV. 결론

아유타야에서 외조부모와 함께 사는 9세 소녀 까티는 비와 천둥소리가 나는 날이면 여자가 외치는 환청이 들리는 것이 싫어서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그 여자의 고탐소리는 배에 있던 어린 딸 까티가 일어나서 엄마에게 오다가 배가 전복될까봐 두려워서 움직이지 말라고 외친 엄마의 목소리였던 것을 까티는 기억하지 못했다. 엄마가 자신의 루게릭 병 증세를 생각지 않은 채 배에 까티를 태우고 나갔다가 비를 만나 일어난 사건이었다. 병증으로 간단한 동작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엄마가 딸을 살리고자 비와 천둥소리에 맞서 하늘에 대고 외쳤기에 그 엄청난 소리의 강도가 까티의 뇌리에 박혀 트라우마가 된 것이다.

이 두 모녀가 헤어져 지낸 세월은 딸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딸의 곁을 떠나겠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자신의 병증을 깨달은 엄마로 인한 것으로, 루게릭 병 환자로 시한부 인생 5년을 선고 받은 엄마가 그리운 딸을 만나지 못한 형벌의 시간이었다. 죽음이 임박해서야 태국 남부 휴양지 후아힌에서 모녀 상봉을 하자 엄마는 과거 아유타야에서 자신이 벌인 악몽 같은 사건을 까티에게 밝혔다. 엄마의 구술을 통해 까티는 자기가 듣기 싫어했던 여자의 고탐소리가 바로 딸을 살리고자 외친 엄마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까티는 엄마의 사후에 엄마가 남긴 사진에서 가족들과 닮지 않은 자신의 ‘눈’

48) งามพรรณ เวชชาชีวะ, 앞의 책, p. 3.

이 아빠를 닮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 ‘눈’에 관한 트라우마도 해결된 셈이다. 아빠는 버마 출신, 엄마는 아유타야 출신이라는 것은 그 옛날 버마에 패망했던 아유타야 왕국이라는 트라우마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일면이 있지만, 까티는 이런 역사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했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빠를 만나 는 길을 까티는 선택하지 않았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부계혈통에 따르자면 버마 출신이 되는 까티는 이런 출신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다. 방콕에서 태어나 엄마와 함께 살았던 까티가 엄마의 발병 후로 지금까지 외조부모와 함께 살아온 섬 마을, 아유타야에서 다시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은, ‘현재’의 생활을 중시한다는 일면이 있다. 아열대 기후에 걸맞은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집안일을 도우는 일상에서 배려심이 있는 마음가짐을 키웠고 외조부의 타인에 대한 헌신성을 흠모했던 까티이기 때문이다.

까티는 엄마도 외조부의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닮아서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는 흡족해 한다. 엄마는 외조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것이 아니라 까티의 미래에 들어갈 학자금도 마련 해두었으니, 까티는 지금처럼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다. 다만 과거와는 달라질 앞으로의 과제라면 까티가 지금까지 시달렸던 트라우마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일이다. 까티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구술로 트라우마를 재현한 것은 트라우마의 원인을 찾고,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기시미 이치로, 『행복해질 용기』, 이웅택 옮김, 더좋은책, 2015.
- 김성원, 『미안마 왕조사』, 부산외국어대학교, 2001.
- 레이 초우,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 장수현·김우영 옮김, 이산, 2005.
- 신근혜, 「태국 소설 『카티의 행복』의 한국어 번역본 일고찰: 문화 어휘 번역 양상 연구」, 『比較文學』, 71호, 한국비교문학회, 2017, 41~66쪽.
- 안건훈, 『자유 의지와 결정론』, 집문당, 2006.
- 제인 베자지마(Jane Vejajiva), 『카티의 행복』, 이승숙 옮김, 위즈덤하우스, 2011.
- 최난옥, 「원 리어우와린의 『진짜 파랑』에 나타난 인권과 휴머니즘」, 『외국문학연구』, 8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22, 125~146쪽.
- งานพรรณเนชชาภิระ, *ความสุขของกะทิ*, กรุงเทพฯ: แพรวสำนักพิมพ์, 2007.
- เรือเอกหญิงปรีชา หิรัญประดิษฐ์, “วรรณคดีสมัยสุโขทัย-อยุธยา พ.ศ.๒๑๗๒”, *พัฒนาการวรรณคดีไทย*, นนทบุรี: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สุโขทัยธรรมาธิราช, 1992, pp. 85~133.

Abstract

Representation of Trauma and Nature-friendly Environment in Thai Novel *Happiness of Kati*

Choi, Nan-Oa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cturer)

The Happiness of Kati by Ngarmpun Vejajiva is a story about a 9-year-old girl, Kati, born between a Thai mother and a Burmese father. This study focuses on the representation of trauma and nature-friendly environment in this work. Kati's mother is a patient with Lou Gehrig's disease, a five-year deadline. Kati, who lives with her maternal grandparents in Ayutthaya, Thailand, suffers from a woman's shout when it rains and thunders. Kati's mother meets Kati when her death is imminent and tells Kati about the incident that she had to leave Kati. Kati is suffering from this trauma because of the incident. Kati decides not to meet her father in England after her mother's death. According to the paternal lineage, Kati, who is from Burma, is not bound by this origin and chooses to continue living with her maternal grandparents. Because in a nature-friendly environment suitable for a subtropical climate, Kati has developed a caring mind in daily life to help her maternal grandmother's housework, and admires her maternal grandfather's dedication to others.

Keywords: Ngarmpun Vejajiva, Happiness of Kati, Thailand, trauma, natural environment

논문 투고일 : 2022년 09월 25일
심사 완료일 : 2022년 10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10월 21일